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김 지 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여 115문항의 초기문항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48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문항 양호도 검증을 통해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 1에서는 40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2에서는 49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및 수렴, 변별, 공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는 최종적으로 총 28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자신감 저하 8문항, 가족 의견 불일치 4문항, 경제적 어려움 4문항, 지지관계부족 5문항, 가족 기대에 대한 심적부담 3문항, 감정기복 4문항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대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 영역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주요어 : 대학-직장 이행,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본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6S1A5A2A01025544).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은 전 생애 진로 관점에서 중요한 첫 전환 과업이다(Ng & Feldman, 2007). 과거에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은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풀타임의 안정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Ryan, 2001).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산업 사회를 겪은 나라들에서 고등교육 취학률이 급등하면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은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1970년대에는 26.9%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70.4%로 점차 증가하였다(교육통계연계센터, 2019). 이처럼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나, 25세에서 3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 84% 대비 76%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즉, 급속히 증가한 고등교육 진학률에 비해 화이트칼라 직업층의 증가는 정체되고 있어, 현재 20대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직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김은정, 2014). 즉, 삶의 중요한 첫 전환인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탓에 적절한 이행이 일어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은 졸업에 다가가면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더 큰 독립성과 익숙하지 않은 책임감, 새로운 사회적 정체감으로 인해 상실과 우울, 강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한다(Perrone & Vickers, 2003; Wood, 2004). 특히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은 대학-직장 이행 과업을 도전과 성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불확실, 불안정, 불안 등 위기와 위협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nteiro, Santos, & Gonçalves, 2015). 또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실업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혼란스럽고 심란한 것으로 지각하고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다(Arnett, 2007; Côté & Bynner, 2008). 즉,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구직활동에 소진됨을 느끼게 되며, 취업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김효정, 김봉환, 2011), 청년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장춘미, 2009). 이에 청년 취업난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여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청년 실업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대응하도록 하는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아라, 이주영, 김계현, 2013). 즉,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구직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입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청년 취업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은 여전히 취업 성패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에 보다 치중되어 있으며,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직장 이행이라는 진로 과업에는 자신에 대한 탐색, 정체감 확립, 진로 목표 설정, 진로 대안 탐색, 실질적인 구직 활동 등 여러 가지 진로 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취업 준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취업 준비 활동은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구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입사 지원, 면접, 시험 응시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이제경, 김동일, 2004). 즉, 대학-직장 이행은

좀 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진로 발달의 개념이라면, 취업 준비는 좀 더 당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여러 진로 과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청년실업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이아라 등(2013)의 연구에서도 청년 실업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적 요인들이 실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행동과 동기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적 개입에 있어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대학-직장 이행의 어려움을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척도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직장 이행이라는 특정 맥락을 배경으로 우울, 불안이 측정되었는지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대학-직장 이행을 주제로 하는 여러 질적 연구들은 이 시기에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소수의 대상자로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 방법 상의 한계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즉, 개인이 경험하는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영향과 개입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지금까지 대학-직장 이행의 맥락을 반영하여 대학-직장 이행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는 취업스트레스 척도(강유리, 2006; 이미숙, 2011), 취업 소진 척도(송윤희, 송원영, 2017) 취업 불안 척도(조규관, 2008) 등이 있다. 취업 불안 척도는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의 유발 상황과 원인, 취업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취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업 소진 척도는 취업 스트레스나 취업 불안으로 인한 장기적 반응인 소진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취업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고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인 소진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취업 스트레스 척도는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으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척도로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Shepherd, Cooper, Brown, & Kalton, 1966)을 참고하여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황성원(1998)의 척도와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강유리(2006)의 척도가 있다. 이들 척도는 취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학업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로 구성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숙(2011)은 황성원(1998)과 강유리(2006)가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척도가 하위요인 구조에 대한 타당화 연구 없이 개발되었다는 한계점을 제시하며, 인지, 정서, 행동, 신체화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취업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미숙(2011)이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찾아서 듣는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취업관련 책을 찾아본다” 등이 문항이 있는데, 이들 문항은 취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취업 준비행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보인다. 즉,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다차원적 요인들을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척도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요인을 밝히기 위해 먼저 대학-직장 이행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을 리뷰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들은 이 시기에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다면적으로 탐색하여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윤초룡(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신체, 정서, 인지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 가족 내 관계, 가족 외 관계, 고용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직장 이행에 대한 준비부족, 부담감, 불확실성과 더불어 섭식관련, 수면관련, 순환기 장애 등 신체적 반응과 불안, 분노, 우울감 등 정서적 반응, 그리고 부정적 인지적 반응 등이 대학-직장 이행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미혜(2017)의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로 불안, 초조, 긴장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 피곤, 의욕저하 등의 신체적 스트레스, 주위 시선과 부모의 기대, 동료에 대한 시기 질투 등의 관계적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었으며, 제한된 일자리와 과도한 스펙의 요구, 그로 인한 취업 준비 비용의 부담 등도 대표적인 취업 스트레

스 경험으로 나타났다. 김지근, 허경민, 허다연, 이기학(2018)의 연구에서도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경험, 현실과 목표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 경제적 부담, 가족 및 또래 관계에서 스트레스, 수면 문제를 포함한 건강상의 어려움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양적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청년들은 취업과 관련하여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임선영, 김태현, 2005; 장재운, 장은영, 신희천, 2006), 취업 스트레스(최승혜, 이혜영, 2014), 저하되는 삶의 만족(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장휘숙, 2009), 진로 장애의 경험(박혜주, 김은주, 천성문, 2012; 장재운 등, 2004),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은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우울, 불안, 분노, 섭식, 수면 등의 심리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 부모님의 영향, 또래관계, 교육적 배경, 사회구조적 맥락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는 주요 이론적 모델 가운데 하나인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에서도, 스트레스를 측정할 때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스트레스-대처 이론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을 강조하는데, 개인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따라 적응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자원으로 개인적 자원(건강, 에너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 문제해결능력 등)과 환경적 자원(가족 구성원과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지지, 사람들과의 연결망, 물리적 자원,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중요한 요소로 제안한다 (McCubbin & Thompson, 1987; Terry, 1991; Thoits, 1986). 이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요소 또한 개인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의 자원 부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초기 문항과 척도 요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 내적인 어려움으로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문제들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관계적, 상황적, 사회구조적 환경들이 유발하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자 한다.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은 ‘대학-직장 이행 과정에서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어려움’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심리사회적’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어려움이 내재적 특성과 경향에 의해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 어려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심각성은 청년 실업을 주제로 보도되는 기사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연일 강조되고 있으나, 개인과 사회는 이러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 개입하기보다는 당면한 취업과 관련된 과업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즉, 개인은 스펙 쌓기와 무한경쟁에 몰두하고 있으며, 대학과 기관들도 취업 및 직업 훈련 중심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로 심리학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직업 환경에서 진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자원을 강조하고 있다(Kuron, Schweitzer, Lyons, & Ng, 2016;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Savickas, 2013). 성공적인 대학-직장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 위기들에 대한 개입 전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척도는 대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 영역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로 예비문항을 구성하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심층면담 축어록 분석 및 문헌 고찰을 통해 1차 초기문항을 구성하고, 범주화 작업 및 외부 내용 전문가 평정을 통해 2차 초기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초기문항의 적합도를 검토하고, 예비문항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7001988-202003-HR-333-07). 연구 대상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 20~29세 대학교 3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연구 대상자를 3학년 이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실제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시작하는 시기가 3학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김태기, 류장수, 이종훈, 이영대, 2005; 이대용, 류동희, 김인환, 고태용, 2011).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의 대상자는 총 300명으로, 온라인 설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연구 목적, 중도 참여 포기 가능,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예비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28명(42.7%), 여자 172명(57.3%)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4.5세($SD=1.99$)로 22세부터 29세까지 구성되었다. 학년분포는 3학년 91명(30.3%), 4학년 183명(61.0%), 5학년 이상 26명(8.7%)이며, 전공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00명(33.3%), 상경계열 50명(16.7%), 사범계열 18명(6.0%), 자연과학계열 34명(11.3%), 공학계열 70명(23.3%), 의치간호계열 8명(2.7%), 예체능계열 12명(4.0%), 기타 8명(2.6%)으로 나타났다.

문항과 척도 개발

개발 척도의 초기문항은 선행연구인 대학-

직장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심층면담 축어록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김지근 등, 2018).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대학교 4학년 이상의 20대 남녀 재학생 및 휴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진로 및 취업 준비 현황’,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위기’, ‘졸업 후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으로 개별 심층면담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저자는 척도 문항 개발을 위해 심층면담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문만을 정리하여 취합하였다. 또한 취합된 진술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의 진술문은 삭제하거나 통합하였으며, 하나의 진술문에는 한 가지 주제만 포함되도록 정리하였고, 정리된 진술문들은 척도 문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추가로 대학-직장 이행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 논문들(남미자, 2013; 박미진 등, 2009; 윤초롱, 2017; 최미혜, 2017)에 제시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인용문들을 바탕으로 초기문항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강유리, 2006; 이미숙, 2011; 정의석, 노안영, 2001),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척도(전검구, 김교현, 이준석, 2000), 취업 불안 척도(조규판, 2008), 취업 소진 척도(송윤희, 송원영, 2017)와 비교하여 보완이 필요한 문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가족 부양의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항을 강유리(2006)의 척도를 참고하여 추가하였다(“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할 것만 같다”). 이를 통해 총 115개의 초기문항이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문항들을 관련 있는 내용끼리 묶는 범주

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1차 범주화 작업에는 본 연구의 주저자와 진로 상담 분야의 석사과정생 3명이 참여하였다. 1차 범주화 작업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다 함께 모여 범주화 작업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1차 범주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일차 범주들의 공통된 속성을 바탕으로 다시 상위차원으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요소로 감정기복, 무기력감, 우울감, 수면장애, 섭식문제, 자기비난, 인생에 대한 비판, 목표타협, 가족기대부담, 가족의견충돌, 관계회피, 지지관계부족, 경제적 어려움, 불공정함 등이 구성되었다.

총 115개의 초기문항은 외부 내용 전문가(진로 상담 분야의 박사학위자) 3명에게 내용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 평정이 의뢰되었다. 전문가들은 개별 문항이 어떤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지, 문항의 내용이 타당한지, 문항이 중복되지 않는지, 문항의 수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였다. 먼저 각 문항이 어떤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류한 결과를 살펴해보았을 때, 감정기복, 무기력감, 우울감, 수면장애, 섭식문제 등의 요인이 상호 중복되어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자기비난, 인생에 대한 비판, 목표타협 등의 요인과, 관계회피, 지지관계부족 요인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요인을 정서문제, 자신감 저하, 지지관계부족 요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또한 각 문항이 구성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5점으로 평정한 결과, 3명의 전문가가 모두 3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문항을 최종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추가로, 전문가들은 개별 문항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각 문항이 대학-

직장 이행 상황을 좀 더 명확히 반영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항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다(예: 가족으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느낀다 → 가족으로부터 취업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느낀다). 이를 통해 최종 예비문항은 7개 요인(정서문제, 자신감 저하, 가족 기대에 대한 부담, 가족 의견 불일치, 지지관계부족, 경제적 어려움, 불공정성),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대체로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

예비문항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왜도와 첨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과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해치는 문항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 및 논의

총 48개 예비문항에 대한 양호도 검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다. 문항 평균은 2.86에서 4.80까지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93부터 1.55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문항의 왜도는 -.75부터 .46까지 나타났으며, 첨도는 -.99에서 .69까지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왜도 절댓값이 2, 첨도 절댓값이 7을 넘지

않음으로 정규성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line, 2016). 그러나 17번 문항(“가족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부담스럽다”)의 경우, 문항 평균이 4.80으로 가장 높고, 표준편차는 .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왜도도 다른 문항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75로 나타났다. 이에 17번 문항은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부족한 문항이라고 판단되어 제거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항-총점 간 상관은 -.06에서 .83까지 나타났다. 특히, 본 척도에는 총 8개의 긍정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의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거나, 매우 낮은 상관이 확인되었고, 해당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긍정문과 부정문이 혼합된 척도들은 요인 구조가 문항의 내용보다 문항이 표현되는 방식을 반영하는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다(Greenberger, Chen, Dmitrieva, & Farruggia, 2003; Pilotte & Gable, 1990; Rodebaugh, Woods, & Heimberg, 2007; Wong, Rindfleisch, & Burroughs, 2003). 본 척도에서도 8개의 긍정형 문항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정형 문항과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모든 문항을 부정형 문항으로 수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예: 주변 사람으로부터 취업의 어려움을 이해받고 있다 → 주변 사람으로부터 취업의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의 예비문항은 초기 개발문항에 대한 전문가 평정을 통해 총 48문항, 7개 요인(정서문제, 자신감 저하, 가족 기대에 대한 부담, 가족 의견 불일치, 지지관계부족, 경제적 어려움, 불공정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예비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분석하여, 1개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8개의 긍정형 문항이 부정형 문항으로 수정되었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예비연구를 통해 구성된 총 47개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척도에 대한 응답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예비문항의 구인을 탐색하고 최종문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으로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 20~29세 대학교 3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연구 1의 대상자는 총 400명으로, 온라인 설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연구 목적, 중도 참여 포기 가능,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1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93명(49.3%), 여자 207명(51.7%)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6세 ($SD=1.66$)로 21세부터 29세까지 구성되었다. 학년분포는 3학년 139명(34.8%), 4학년 238명(59.5%), 5학년 이상 23명(5.8%)이며, 전공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21명(30.3%), 상경계열 62명(15.5%), 사범계열 15명(3.8%), 자연과학계열 42

명(10.5%), 공학계열 99명(24.8%), 의치간호계열 24명(6.0%), 예체능계열 26명(6.5%), 기타 11명(2.8%)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타당화 하고자 하는 척도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총 47개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응답 방식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분석

Mplus 7.4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 도출을 위해 모형별로 적합도 비교가 가능한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요인 간 적합도 비교에서 RMSEA는 .015 이내의 차이, CFI는 .01 이내의 차이를 같은 적합

도로 간주할 수 있으며(Chen, 2007; Cheung & Rensvold, 2002),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는 CFI는 .90 이상, RMSEA와 SRMR은 0.8 미만을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또한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 미만이고 교차 요인부하량이 .25 이상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6요인과 7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나, 6요인 보다는 7요인의 적합도가 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요인의 패턴 행렬을 확인해보았을 때, 일곱 번째 요인은 하나의 요인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4문항 중 1문항은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2문항은 이중부하가 나타남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6요인의 패턴 행렬을 확인해본 결과, 6개 하위요인의 개념과 문항 내용이 보다 적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6요인 모형이 보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90% CI)	CFI	SRMR	AIC	BIC
1요인	5231.66	1034	.10(.09-.10)	.71	.07	55932.57	56495.37
2요인	3922.42	988	.09(.08-.09)	.80	.05	54715.34	55461.74
3요인	3240.02	943	.08(.07-.08)	.84	.04	54122.94	55048.96
4요인	2822.97	899	.07(.07-.08)	.87	.04	53793.88	54895.53
5요인	2516.13	856	.07(.06-.07)	.88	.03	53573.04	54846.32
6요인	2087.85	514	.06(.06-.07)	.91	.03	53228.77	54669.69
7요인	1838.46	773	.06(.05-.06)	.93	.03	53061.38	54665.95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1	2	3	4	5	6	M	SD	문항총점상관
23.	원하는 진로로 취업할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65	-.15	.08	-.07	.06	-.14	3.39	1.39	.69**
32.	원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진다.	.60	.03	.07	-.25	.00	.07	3.42	1.45	.77**
28.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들지 않는다.	.58	-.06	.02	-.12	-.04	.24	3.40	1.41	.78**
43.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56	.00	.11	-.19	-.01	.24	3.49	1.45	.84**
13.	원하지 않는 곳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55	.04	.07	-.04	.14	-.04	3.90	1.37	.59**
27.	학벌, 성별, 나이 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고 느낀다.	.55	-.17	.15	.19	-.01	.24	3.48	1.45	.69**
11.	잘 안 될거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51	.03	.00	-.11	.13	.18	3.65	1.42	.71**
46.	원치 않게 목표를 하향 조정하게 된다.	.47	-.04	.08	-.11	.11	.13	3.58	1.43	.72**
31.	자포자기한 기분이다.	.45	-.16	.08	-.25	-.08	.22	3.01	1.45	.80**
22.	스스로가 한심하게 생각된다.	.45	.09	.10	-.20	.14	.26	3.64	1.49	.80**
3.	진로에 대한 초신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44	-.15	-.18	-.03	.25	-.01	3.65	1.30	.53**
17.	의욕이 없다.	.43	.03	.03	-.24	.06	.31	3.58	1.47	.80**
35.	불공정한 채용 과정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42	-.16	.26	.14	.03	.19	3.44	1.46	.68**
42.	역량과 무관한 조건들이 평가에 반영된다고 여겨진다.	.39	-.07	.24	-.01	.01	.15	3.56	1.39	.66**
39.	자신을 포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32	.08	.13	-.16	.27	.09	3.71	1.36	.68**
24.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30	-.23	.14	-.15	-.13	-.05	3.15	1.39	.65**
29.	진로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가족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03	-.89	.02	.06	-.03	.06	2.46	1.31	.58**
18.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가족이 반대하고 있어 힘들다.	-.03	-.87	.02	-.07	-.05	.00	2.21	1.25	.55**
9.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 가족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고민이다.	-.02	-.76	.01	-.12	.05	.00	2.37	1.34	.59**
37.	진로에 대한 가족의 간섭과 참견으로 인해 원하는 진로를 추구하기 어렵다.	.04	-.69	.07	-.01	.06	.10	2.73	1.41	.64**
44.	가족은 나의 적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취업하기를 강요한다.	.03	-.47	.10	-.15	.31	-.10	2.84	1.44	.66**
4.	중요한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05	-.38	-.08	-.14	.16	.14	2.79	1.25	.61**
41.	가족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다.	.14	-.32	.06	-.06	.25	-.01	2.92	1.42	.63**

(계속)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	2	3	4	5	6	M	SD	문항총점상관
문항										
21.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 마련이 어렵다.	.04	-.06	.86	-.12	-.10	-.09	3.41	1.44	.65**
16.	경제적으로 어려워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	-.02	-.04	.67	.13	.09	.14	3.82	1.46	.56**
7.	취업준비에 비용이 많이 든다.	-.04	.11	.62	-.07	.22	.08	4.10	1.35	.60**
20.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할 것만 같다.	.07	-.11	.55	-.08	.07	-.06	3.20	1.48	.59**
30.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09	-.01	.30	-.30	.20	.19	3.57	1.45	.64**
19.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07	-.19	.13	-.71	-.02	.09	2.82	1.40	.73**
12.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꺼려진다.	-.04	-.06	-.02	-.68	.11	.19	3.14	1.49	.72**
33.	힘든 점을 나눌 사람이 없다.	.18	-.17	.07	-.62	-.04	.00	2.96	1.43	.75**
14.	다른 사람들과 고민을 공유하기 어렵다.	.15	-.13	.07	-.47	.03	.06	3.31	1.33	.68**
40.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	.22	-.12	.19	-.43	.02	.04	3.18	1.40	.76**
47.	주변 사람들로부터 취업의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21	-.24	.12	-.37	.07	-.02	2.99	1.37	.73**
1.	가족으로부터 취업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느낀다.	-.09	-.15	.08	.02	.72	-.03	3.89	1.28	.53**
6.	가족의 눈치가 보인다.	.00	-.13	.04	.00	.65	.20	3.82	1.35	.69**
10.	취업에 대한 가족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07	-.04	.16	-.08	.63	-.03	3.80	1.36	.66**
45.	주변 사람들이 취업에 대해 물어보면 부담스럽다.	.26	.18	.18	-.24	.42	.01	4.03	1.49	.71**
34.	취업을 하지 못해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염려된다.	.27	.16	.26	-.10	.41	.10	3.91	1.45	.72**
26.	가족이 만족할만한 직업을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28	-.10	.13	.05	.40	.09	3.74	1.40	.69**
2.	이제까지의 삶을 자책하게 된다.	.26	.03	-.05	-.21	.31	.25	3.75	1.35	.70**
38.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걱정된다.	.27	.08	.10	-.15	.30	.17	3.69	1.38	.69**
5.	감정 기복이 심하다.	-.03	-.03	-.01	-.02	.05	.76	3.73	1.32	.58**
15.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	-.08	-.19	.08	-.12	-.08	.67	3.22	1.35	.62**
25.	짜증이 늘고 있다.	.20	.00	.09	.00	.09	.60	3.74	1.34	.71**
36.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	.23	.06	.13	-.15	.12	.45	3.67	1.42	.77**
8.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14	-.16	-.03	-.30	-.01	.40	2.57	1.52	.69**

주. ** p<.001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6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패턴 행렬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요인부하량이 .4보다 낮은 문항(4, 24, 30, 39, 41, 42, 47번)과 두 개 이상의 요인에 .25보다 큰 이중부하가 나타난 문항(2, 3, 8, 17, 22, 26, 31, 34, 35, 38, 44, 45번)이 제거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이 반영하고 있는 구성개념을 고려하여 요인 1은 자신감 저하(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 없고 앞날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상태), 요인 2는 가족 의견 불일치(가족과 진로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는 상태), 요인 3은 경제적 어려움(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태), 요인 4는 지지관계부족(힘든 것을 홀로 감내하고 있는 상태), 요인 5는 가족 기대에 대한 심적부담(취업에 대한 가족의 기대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상태), 요인 6은 감정기복(부정적 정서에 대한통제가 어려운 상태)으로 명명하였다. 최종문항에 대하여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자신감 저하 .92, 가족 의견 불일치 .91, 경제적 어려움 .84, 지지관계부족 .90, 가족기대에 대한 심적부담 .82, 감정기복 .86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검사 전체의 Cronbach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는 6요인이 가장 타당한 구조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요인별로 낮은 요인부하량과 이중부하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자신감 저하(8문항), 가족 의견 불일치(4문항), 경제적 어려움(4문항), 지지관계부족(5문항), 가족 기대에 대한 심적부담(3문항), 감정기복(4문항) 등 총 28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이어지는 연구 2에서는 6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위요인에

대한 구성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개발한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의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이론적 구성개념들이 다른 표본에서 수집된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와 비슷한 특성을 측정하는 취업 압박 척도와와의 관계를 통해서 수렴타당도를, 서로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진로적응성 척도와와의 관계를 통해 변별타당도를, 예측 가능한 다른 행동준거로서 취업 소진 척도와와의 관계를 통해 공준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으로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 20~29세 대학교 3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연구 2의 대상자는 총 500명으로, 온라인 설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연구 목적, 중도 참여 포기 가능,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불성실하게 응답된 2명의 자료가 제외되었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연구 2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215명(43.2%), 여자 283명(56.8%)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4.4세($SD=1.87$)로 21세부터 29세까지 구성되었다. 학년분포는 3학년 152명(30.5%), 4학년 304명(61.0%), 5학년 이상 42명(8.4%)이며, 전공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70명(34.2%), 상경계열 72명(14.5%), 사범계열 22명(4.4%), 자연과학계열 45명(9.0%), 공학계열 110명(22.1%), 의치간호계열 27명(5.4%), 예체능계열 39명(7.8%), 기타 13명(2.6%)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타당화 하고자 하는 척도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6개 하위요인(자신감 저하, 가족 의견 불일치, 경제적 어려움, 지지관계부족, 가족 기대에 대한 심적부담, 감정기복), 총 28개 문항,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자신감 저하 .93, 가족 의견 불일치 .90, 경제적 어려움 .85, 지지관계부족 .88, 가족 기대에 대한 심적부담 .85, 감정기복 .87로 나타났다.

취업 압박

Choi 등(2011)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 스트레스 검사(Career Stress Inventory)의 하위요인 중 취업 압박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으며, 총 5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 문항으로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등을 들 수 있다. Choi 등(2011)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

Rottinghaus, Day와 Borgen(2005)이 개발한 진로미래검사(Career Future Inventory)를 최옥현과 김봉환(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3개 하위요인(진로적응성, 진로긍정성, 직업시장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 요인에 해당하는 6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새로운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할 것이다.”, “나는 일의 세계에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등이 해당한다. Rottinghaus 등(2005)은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85로 보고하였으며, 최옥현과 김봉환(2006)은 .78,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8으로 나타났다.

취업 소진

송윤희와 송원영(2017)이 개발한 취업 준비 중 겪게 되는 취업 소진을 측정하는 척도(Job-Search Burnout Scale)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탈진, 반감, 무능감, 부정적 신념, 비인간화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취업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지친다.”, “나는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 등이 있다. 송윤희와 송원영(2017)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92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73~.94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Mplus 7.4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RMSEA, CFI, TLI, SRMR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CFI, TLI는 .90 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하며, RMSEA와 SRMR은 0.8 미만을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또한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변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공존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취업 압박, 진로적응성, 취업 소진 변인과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결과 및 논의

확인적 요인분석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의 6요인 구조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07(90%CI: .06-.07), CFI .92, TLI .90, SRMR .05로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요인 간 상관은 .46에서 .81까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하위요인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2에서 .89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6요인 구조가 다른 자료에서도 교차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및 수렴, 변별, 공존 타당도 분석

척도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취업 압박, 진로적응성, 취업 소진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3). 우선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척도 총점은 6개의 하위요인과 .70 이상의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6개의 하위요인 간 상관은 .41에서 .72까지로 중간 크기 이상의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취업 압박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척도 총점과 높은 정적상관($r=.82, p<.001$)이 나타났고, 6개의 하위요인 과도 .56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가 취업 압박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미래진로에 대한 적응성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척도 총점은 진로적응성 척도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낮은 크기의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r=-.32, p<.001$), 7개의 하위요인과는 -.09의 유의미하지 않은 부적상관부터, -.37까지 중간크기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가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의 공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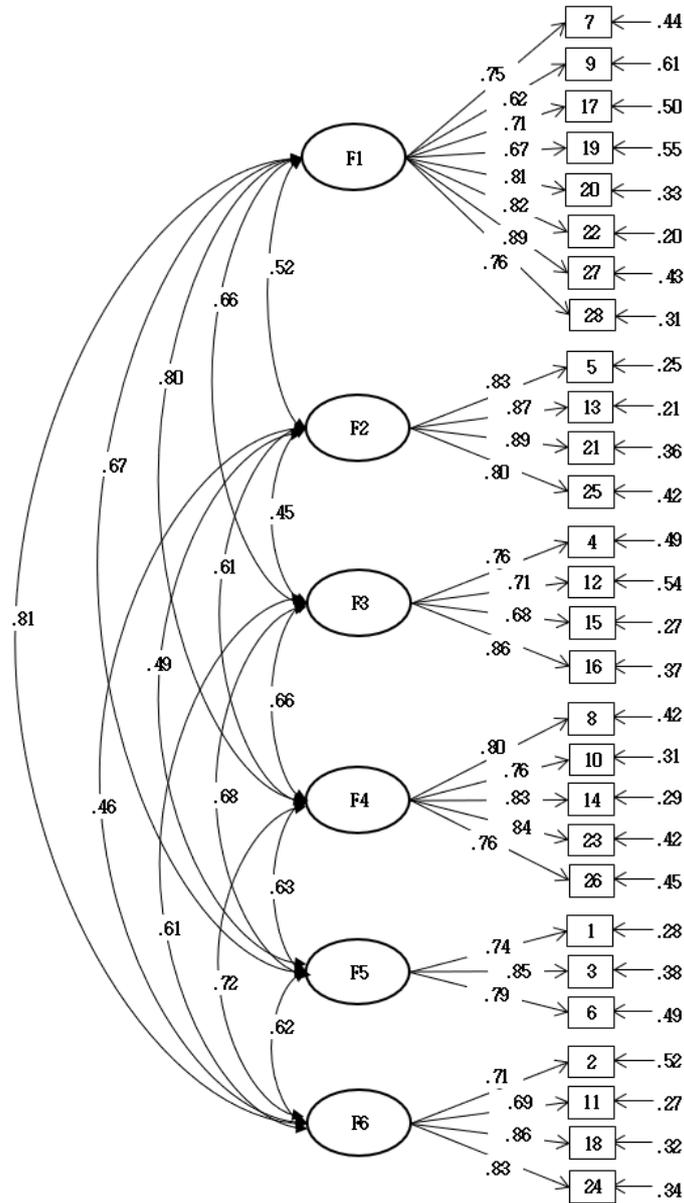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경로도 (표준화 추정치)

주. 요인명: F1(자신감 저하), F2(가족 의견 불일치), F3(경제적 어려움), F4(지식관계부족), F5(가족 기대에 대한 심적부담), F6(감정기복)

표 3. 대학-직장 이행의 의미의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와 수렴, 변별, 공존 타당도

	1	2	3	4	5	6	7	8	9	10
1. 척도총점	(.96)									
2. 자신감 저하	.90**	(.93)								
3. 가족의견불일치	.70**	.51**	(.90)							
4. 경제적 어려움	.76**	.58**	.41**	(.85)						
5. 지지관계부족	.87**	.72**	.58**	.58**	(.88)					
6. 가족기대에 대한 심적부담	.73**	.59**	.44**	.58**	.54**	(.85)				
7. 감정기복	.80**	.70**	.44**	.52**	.65**	.50**	(.87)			
8. 취업 압박	.82**	.75**	.58**	.63**	.68**	.56**	.65**	(.84)		
9. 진로적응성	-.32**	-.37**	-.22	-.09	-.30**	-.20**	-.27**	-.24**	(.88)	
10. 취업 소진	.83**	.79**	.48**	.62**	.69**	.61**	.71**	.83**	-.31**	(.95)

주. 대각선은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나타냄.

주. ** $p < .001$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진을 평가하는 취업 소진 척도와 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척도 총점은 취업 소진과 유의미한 높은 정적상관($r = .83, p < .001$)이, 6개의 하위 요인과의 .48에서 .79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로써,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가 공존타당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의 예비문항은 초기 개발문항에 대한 전문가 평정을 통해 총 48문항, 7개 요인(정서문제, 자신감 저하, 가족 기대에 대한 부담, 가족 의견

불일치, 지지관계부족, 경제적 어려움, 불공정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비연구(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와 연구 1(탐색적 요인분석), 연구 2(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이 구성되었다.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의 최종 문항은 자신감 저하 8문항, 가족 의견 불일치 4문항, 경제적 어려움 4문항, 지지관계부족 5문항, 가족 기대에 대한 심적부담 3문항, 감정기복 4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신감 저하, 감정 기복 등 개인의 심리 내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가족 의견 불일치, 가족 기대에 대한 심적 부담, 지지관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각 요인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자신감 저하는 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앞날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학-직장 이행의 내적 어려움 중 인지와 관련한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감 저하 요인에는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심상, 판단,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초기 문항의 범주화 작업을 통해 구성한 예비문항의 요인 중, 불공정성에 포함된 “학벌, 성별, 나이 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고 느낀다”의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신감 저하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해당 문항은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차별 경험에 의한 어려움을 반영하고자 하였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학벌과 성별, 나이 등의 요소로 인한 자신감 저하의 의미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감정기복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대학-직장 이행의 내적 어려움 중 정서와 관련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비문항의 정서문제 요인에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우울, 무기력감, 감정기복 등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는 감정기복을 반영하는 3개 문항과 더불어 우울감을 반영하는 1개 문항이 해당 요인에 포함되었다. 또한 의욕 없음과 자포자기, 죽고 싶은 마음 등 우울과 무기력감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이 중부하로 삭제되었다. 이들 문항은 정서문제를 반영하는 다른 문항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지속적인 취업 실패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인 차별성이 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통계청(2018)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졸업 후 첫 취업에 이르는 평균 소요기간

이 약 11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첫 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만큼, 취업 준비 기간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를 확인한 장재윤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우울 및 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복적인 취업 실패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험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취업 대졸자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 실패로 인한 정서 문제보다는 구직 준비 및 활동 단계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예민함을 반영한 감정기복이 정서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척도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대학-직장 이행과 관련하여 가족 의견 불일치, 가족 기대에 대한 심적 부담, 지지관계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가족 관련 요인으로, 가족과 진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반영하는 요인과 취업에 대한 가족의 기대로 부담감을 느끼는 요인이 도출됨으로써,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가족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맥락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학-직장 이행은 자율성과 의존성이라는 역설적인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과업이다. 즉, 이 시기는 주변 어른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 객체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러가는 자율적 객체가 된다(Wyn & White, 2000; 전상진, 정주훈, 2006).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대학-직장 이

행에 있어서 의존성보다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개인의 안녕감을 더욱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Kalin et al., 2000), 한국 사회에서는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타인과의 분리’보다 ‘타인과의 연계’가 더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은정, 2014).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짐으로써, 부모의 자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징이 본 척도의 가족 관련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대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이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의견과 기대에 대한 고려가 분리될 수 없는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가족 외에도 힘든 점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관계의 부족이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서의 이행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지지의 부족은 안녕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전반적인 적응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Galambos, Barker, & Krahn, 2006; Mortimer, Zimmer-Gembeck, Holmes, & Shanahan, 2002; Polach, 2004). 특히 대학-직장 이행에 대한 질적 연구들에서는 관계적 지지가 대학-직장 이행의 적응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Murphy, Blustein, Bohlig, & Platt, 2010). 그러나 현실의 치열한 취업 경쟁은 대학생의 삶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과정까지는 학교와 부모의 도움을 받았지만 취업이라는 장애물에서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과정을 넘어야 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김지근 등, 2018), 또래는 협력의 대상이기 보다는 경쟁자이며 비교의 대상자로 여겨지고 있다(남미자, 2013). 이러한 대학-직장 이행의 맥락들이 지지관계부족이라는 어려움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압박, 가족 부양의 책임감을 반영하는 문항과 취업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년 구직난과 경쟁의 심화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를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범석과 정화민(2014)의 연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외국어, 자격증, 공무원시험, 직무관련, 컴퓨터, 컨설팅 등)과 취업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준비(치아교정, 성형, 피부과 진료, 의료 잡화비용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 연평균 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경제적 어려움 요인은 이처럼 취업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개발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통한 신뢰도 분석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타당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6개의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85에서 .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도 검증에 위한 내적합치도 값은 0.7 이상이 제안된다는 기준(Cortina, 1993)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척도의 수렴, 변별, 공존 타당도는 취업 압박, 진로적응성, 취업 소진 척도와 상관계수 분석

을 통해 확인하였다.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유사한 개념을 반영하는 취업 압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82$ 의 매우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서로 다른 개념을 반영하는 진로적응성 척도와는 $r=-.32$ 의 유의미하지만 낮은 부적상관이 나타남으로써 두 척도가 변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취업 소진 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r=.83$ 으로 매우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수준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탈진 및 고갈을 의미하는 취업 소진 상태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는 추후 연구와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함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대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정재호, 서유정, 2016). 따라서 대학생들이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직장 이행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구직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 조사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의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활용은 개인의 심리적 지원 방안과 정책적 지원 등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요소를 보다 다양하게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발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척도 요인과 문항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척도에서 나타난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중 환경적 요인들은 기존의 대학-직장 이행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척도의 요인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척도들은 대부분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 두려움, 걱정 등 심리 내적인 요인에 한정하여 측정하고 있거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들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유리(2006)의 취업스트레스 척도는 학교환경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요인의 문항은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와 가족의 경제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송윤희와 송원영(2017)의 취업 소진 척도에서도 비인간화의 요인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관계 문제를 문항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 불안과 압박감이라는 정서적 문제로 인한 관계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취업 문제에 있어 맥락적 변인들은 예방상담학적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다(이아라 등, 2013). 맥락적 변인이라 함은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

에서 자신이 속한 가족, 사회, 문화 등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가족의 정서적 또는 재정적 지원과 같이 진로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근접한 변인을 의미한다(Lent, Brown, & Hackett, 1994). 특히 대학-직장 이행은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 없는 개인이 적응하고 대처해야 할 과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적응을 촉진시켜주는 근접한 맥락 변인의 영향이 중요하며, 이는 진로상담에 있어서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Lent & Brown, 2008). 따라서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에 이러한 맥락적 요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대학-직장 이행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용할 것이다.

특히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는 개인이 경험하는 진로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는 진단 도구로 활용하여, 상담 장면에서 진로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영역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돕고, 개입의 효과를 측정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개인은 비슷한 위험이나 압력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인지하는 수준과 반응, 태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소용준, 박준성, 2016). 특히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어려움이 진로 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된 바 있다(Albert & Lozzo, 1999; Swanson & Woitke, 1997). 따라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상담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로 상담 장면에서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를 사용할 경우,

단순히 척도의 점수만을 활용하기보다는 척도 개별 문항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통해 보다 세밀한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자신감 저하 요인에서 어려움이 확인된 내담자에게는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이를 자신의 스펙 부족으로 귀인해 자신감이 저하되고, 구직 눈높이 조절에 대한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연, 양성은, 2012). 이러한 어려움에 있어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변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대학-직장 이행 과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감정기복과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에게는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타당화와 정서조절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다. 특히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취업준비 과정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부정적 정서 경험을 타당화 받고, 혼란감과 부적절감이 감소되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김지근, 이진구, 이기학, 2019). 실제로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특정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화 작업은 현재 이행 과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호흡과 이완, 명상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짜증, 긴장, 화, 초조함, 불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과의 진로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가족 기대로 인한 심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에게는 먼저 대학-직장 이행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족이 내담자의 정서와 인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와의 진로 갈등은 진로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김민선, 2018), 부모의 높은 기대 수준은 회피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이기세, 이수정, 연규진, 2018),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내담자가 통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상담장면에서는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상담자와의 역할 연기를 통해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부모와의 소통에 적용해봄으로써, 진로와 관련하여 가족 내 의견과 기대의 조율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내담자가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지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담자에게 정보와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하는 지원자로서의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지자원과 관련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망을 탐색해봄으로써, 새로운 요구에 맞는 새로운 지지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게 조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의 선택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낮은 임금 조건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문찬주 등, 2018).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는 정부의 청년구직할

동지원금을 포함하여, 교내 취업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초기문항은 본 연구의 주저자에 의해 질적 연구의 축어록 분석과 기존 측정 도구의 분석 등을 통해 추출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초기 문항 구성이 주저자 1명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은 척도 개발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에 있어 한계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초기문항 추출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문항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며, 초기문항 구성 이후 범주화 작업에서 석사과정생 3명을 참여시키고, 외부 내용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토를 통해 예비문항 구성 절차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초기문항 구성 과정에서 연구자에 의해 추출되지 못한 문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한 척도 문항 구성 과정에서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적·환경적 구성요인을 포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이론적 틀의 부재로 추가적인 구성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척도에 있어 추가적인 문항과 요인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 3학년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무선표

집을 한 것이 아니라 편의표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의 취업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정부와 민간의 취업상담지원기관에서 본 척도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인 대학생 3학년생부터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활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상대적으로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보다 심각할 수 있는 장기 미취업 대졸자의 어려움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업 대졸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척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집단 내에서도 학년이 높아지고 졸업에 가까워질수록 취업 준비에 몰입하면서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옥, 2011; 장재운, 남순현, 김범성, 신희천, 신현균, 2003). 즉,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한 3학년생과 취업에 보다 직면한 졸업 학기 대학생들 간에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또는 차별 기능문항 분석 등을 통해 학년에 따라, 취업 준비 기간 등에 따라 척도 문항과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기능하는지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연구, 연구 1, 연구 2에 걸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모든 연구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뢰도 분석에서 활용된 Cronbach's alpha는 척도 문항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Cronbach's alpha만으로 내적 신뢰도의 적절함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Cortina, 199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같이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횡단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예측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본 척도와 진로적응 및 발달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직장 이행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심리사회적 자원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척도의 타당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유리 (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수연, 양성은 (2012). 청년구직자의 취업준비 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47-64.
- 교육통계연계센터 (2019). 2019년 교육기본 통계.
- 김명옥 (201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201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진로갈등과 진로결정 어려움의 관계: 부정적 진로기대와 진로결정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 135-157.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 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 김지근, 이진구, 이기학 (2019). 대학-직장 이행을 위한 대처자원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3), 283-313.
- 김지근, 허경민, 허다연, 이기학 (2018). 성인도래기의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217-248.
- 김태기, 류장수, 이종훈, 이영대 (201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1): 대학재학생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효정, 김봉환 (2011). 청년구직자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사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85-810.
- 남미자 (2013). 초원을 달릴 수 없는 경주마; 대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내러티브. *교육인류학연구*, 16(2), 155-192.
- 문찬주, 양찬주, 문하은, 나운진, 김지은, 남인혜, 정동욱 (2018). 대학생의 생활비 대출과 대학 졸업 및 취업성과 간 관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7(2), 1-27.
-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 417-435.
- 박혜주, 김은주, 천성문 (2012). 대학생 취업장벽 척도 개발. *대학생활연구*, 18(1), 1-27.
- 소용준, 박준성 (2016). 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진로연구*, 6(4), 23-44.
- 송윤희, 송원영 (2017). 대학생 취업 소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3), 551-564.
- 윤초롱 (2017). 취업 준비생의 심리적 어려움 및 지원요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영 컨설팅 리뷰* 6(2), 197-209.
- 이기세, 이수정, 연구진 (2018). 대학생들의 부모기대부응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진로수행회피목표의 매개 효과. *진로교육연구*, 31(3), 21-41.
- 이대용, 류동희, 김인환, 고태용 (2011). 한국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2), 41-68.
- 이미숙 (20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아라, 이주영, 김계현 (2013). 예방상담학적 관점에서의 국내 청년실업 연구동향과 개입방안. *상담학연구*, 14(1), 115-141.
- 이제경,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 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훈구, 김인경, 박운창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87-101.
- 임선영, 김태현 (2005). 청년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51-73.

- 장재윤, 남순현, 김범성, 신희천, 신현균 (2003). 청년실업에 대한 패널조사연구: 대졸 미취업자들의 구직 행태 및 정신 건강.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 (2004). 대학 4학년생의 구직 행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45-165.
-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 장춘미 (2009). 대학생 자살관련 요인과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모색. 학생생활연구, 22, 59-71.
- 장휘숙 (2009).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9-36.
-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정범석, 정화민 (2014). 국내 대학생의 취업태도 및 취업준비 비용에 관한 연구. 경영과정보연구, 33(4), 1-19.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의석, 노안영 (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3, 85-101.
- 정재호, 서유정 (2016). 대학 취업지원센터의 현황과 과제. 직업과인력개발, 19(2), 66-79.
- 조규관 (2008).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教育學研究, 46(2), 53-75.
- 최미혜 (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9, 347-375.
- 최승혜, 이해영 (2014). 대학생의 불안, 취업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619-627.
-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Career Futures Inventory(CFI)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9년 OECD 교육지표.
- 황성원 (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bert, K. A., & Luzzo, D. A. (1999).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4), 431-436. doi:10.1002/j.1556-6676.1999.tb02470.x
- Arnett, J. J. (2007). Suffering, selfish, slackers? Myths and reality about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1), 23-29. doi:10.1007/s10964-006-9157-z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L.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36). Newbury Park, CA: Sage.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doi:10.1080/10705510701301834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doi:10.1207/S15328007SEM0902_5
- Choi, B. Y., Park, H., Nam, S. K., Lee, J., Cho, D., & Lee, S. M. (2011). The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career stress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6), 559-572.
- Cortina, J. 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1), 98-104.
doi:10.1037/0021-9010.78.1.98
- Côté, J. E., & Bynner, J. M. (2008). Chang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the UK and Canada: The role of structure and agency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251-268.
doi:10.1080/13676260801946464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299. doi:10.1037/1082-989X.4.3.272
- Galambos, N. L., Barker, E. T., & Krahn, H. J. (2006). Depression, self-esteem, and anger in emerging adulthood: seven-year traject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50-365.
doi:10.1037/0012-1649.42.2.350
- Greenberger, E., Chen, C., Dmitrieva, J., & Farruggia, S. P. (2003). Item-wording and the dimensionality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Do they matt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6), 1241-1254.
doi:10.1016/S0191-8869(02)00331-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Kälin, W., Semmer, N. K., Elfering, A., Tschann, F., Dauwalder, J.-P., Heunert, S., & Roten, F. C. v. (2000). Work characteristics and well-being of Swiss apprentices entering the labor market. *Swiss Journal of Psychology*, 59(4), 272-290. doi:10.1024//1421-0185.59.4.272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uron, L. K., Schweitzer, L., Lyons, S., & Ng, E. S. (2016). Career profiles in the “new career”: Evidence of their prevalence and correlate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21(4), 355-377.
doi:10.1108/CDI-05-2015-006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doi:10.1177/1069072707305769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doi:10.1006/jvbe.1994.1027
- McCubbin, H. I., & Thompson, A. I. (1987).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 practice*. WI: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Mitchell, K. E., Levin,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2), 115-124. doi:10.1002/j.1556-6676.1999.tb02431.x
- Monteiro, A. M., Santos, P. J., & Gonçalves, C. M. (2015). Building a scale of the meanings of transition from higher education to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3), 481-492. doi:10.1177/1069072714547614
- Mortimer, J. T., Zimmer-Gembeck, M. J., Holmes, M., & Shanahan, M. J. (2002). The process of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Pattern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3), 439-465. doi:10.1006/jvbe.2002.1885
- Murphy, K. A., Blustein, D. L., Bohlig, A. J., & Platt, M. G. (2010). The college-to-career transition: An exploration of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8*(2), 174-181. doi:10.1002/j.1556-6676.2010.tb00006.x
- Ng, T. W. H., & Feldman, D. C. (2007).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role identity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1), 114-134. doi:10.1016/j.jvb.2007.04.004
- Perrone, L., & Vickers, M. H. (2003). Life after graduation as a "very uncomfortable world": An Australian case study. *Education + Training, 45*(2), 69-78. doi:10.1108/00400910310464044
- Pilotte, W. J., & Gable, R. K. (1990).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item stems on the validity of a computer anxiety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0*(3), 603-610. doi:10.1177/0013164490503016
- Polach, J. L. (2004).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college graduat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employ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5*(1), 5-23. doi:10.1002/hrdq.1084
- Rodebaugh, T. L., Woods, C. M., & Heimberg, R. G. (2007). The reverse of social anxiety is not always the opposite: The reverse-scored items of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do not belong. *Behavior Therapy, 38*(2), 192-206. doi:10.1016/j.beth.2006.08.001
- Rottinghaus, P. J., Day, S. X., & Borgen, F. H.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doi:10.1177/1069072704270271
- Ryan, P. (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1), 34-92.
-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147-183). NJ: John Wiley & Sons.
- Shepherd, M., Cooper, B., Brown, A., & Kalton, G. (1966). *Psychiatric disorder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2. doi:10.1177/106907279700500405
- Terry, D. J. (1991). Predictors of subjective stress

- in a sample of new parent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3(1), 29-36.
doi:10.1080/00049539108259093
-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doi:10.1037/0022-006X.54.4.416
- Wong, N., Rindfleisch, A., & Burroughs, J. E. (2003). Do reverse-worded items confound measures in cross-cultural consumer research? The case of the material values sca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0(1), 72-91.
doi:10.1086/374697
- Wood, F. B. (2004). Preventing postpartum depression: A model of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enior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1(2), 71-79.
- Wyn, J., & White, R. (2000). Negotiating social change: The paradox of youth. *Youth & Society*, 32(2), 165-183.
doi:10.1177/0044118X00032002002

원 고 접 수 일 : 2020. 03. 26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5. 08

게 재 결 정 일 : 2020. 06. 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sychosocial Difficulties of College to Work Transition Scale

Ji Geun Kim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Psychosocial Difficulties of College to Work Transition Scale (PDCWTS). First, 115 initial items were developed by reviewing prior research, then 48 preliminary items were derived through expert review. Using a preliminary test conducted with 300 students at or above the third year of college, who were preparing for employment after graduation, researchers corrected and supplemented items by verifying item quality. In Study 1, EFA was conducted based on data from 400 participants, and in Study 2 CFA was conducted to verify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oncurrent validity based on data from 498 participants. The final PDCWTS is composed of 28 items, and six sub-factors (decline in confidence, family disagreement, economic difficulties, lack of support, family expectation burden, and mood swings). The PDCWTS can be used to identify the psychosocial difficulties of the college to work transition and to establish effective interventions.

Key words : college to work transition, psychosocial difficultie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